

# 현대과학의 외피쓰고 재등장한 신화의 불멸성

## 영웅신화 재현하는 대중문화의 상상력

김성기 | 현대사상 주간

신화란 인간이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이다. 옛 신화의 주무대가 자연이었다면 오늘의 신화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문화적 장치다. 대중문화는 영웅신화의 재현으로써 슈퍼맨을 창안했다. 현대적 가이아는 현대과학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화로 재신화화돼 등장한다. 신화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억압됐다가 다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다.

누가 신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이 묻는 신화란 뭐냐고 되물을 것이다. 이 반문에는 신화의 범주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스며 있다. 신화라면 대뜸 단군이나 오디푸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돈나나 빌 게이츠의 성공신화를 연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옛날옛적의 신화나 우리 시대의 신화나 하는 구분이 일단은 필요할 터이다.

### 오늘의 신화, 대중문화

우선 옛 신화는 세계, 인간, 또는 죽음의 기원에 관한 종교적 성격의 이야기다. 예로, 세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창조신화는 '오늘 냉혹한 타산과 기계문명을 거부하며 깨어 있는 영혼에 마음의 고향 같은 아늑함을 준다'거나 문학평론가 이남호의 표현대로 '상상력의 보물창고'라고 평가된다. 합리성과 공리성이 지배하는 현대문명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신화적 상상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세기적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역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나 《신화의 힘》이 이를 웅변한다.

그러면 오늘의 신화란 뭔가. 이때 신화는 현대사회에서 정형화된 상징세계를 포괄한다. 현대인의 상상력에 의미의 물줄기를 대는 문화일반의 층위로 확장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의 신화라고 할 때 나는 주저 없이 대중문화의 세계를

지목한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신화다. 현대인이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통적 신화와 같은 궤적에 놓인다. 하지만 옛 신화에서 세계란 게 자연이 주무대였다면 오늘의 신화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문화적 장치인 셈이다.

이 같은 관점은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에 잘 드러나고 있다. 거기서 바르트는 정치와 경제현상에서 사물·광고·패션·성·육체·욕망·유희 같은 소소하고 내밀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화와 그 의미를 추적한 바 있다. 나 역시 그런 접근법에 기대어, 20세기 대중문화가 오늘의 신화의 산실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신화의 현대적 위상을 알아보는 한 방편으로 대중문화의 세계와 '접속' 하겠다는 말이다.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신화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 슈퍼맨, 영웅신화의 재현

거듭 말하자. 신화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이다. 그것은 기존 제도와 질서를 정당화하고 현실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소한다. 신화는 현상 질서를 자연화하는데, 바로 이 대목이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상통하는 바 크다. 이 점은 20세기

대중문화론의 중요한 성취를 이룬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에 의하면 대중문화는 대중의 의식을 왜곡, 조작하는 마취제이자 현실의 균열을 봉합하는 접착제 구실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뒤덮이고 이데올로기로 지탱되는 신화의 시대라는 것이다.

물론 20세기는 과학의 시대다. 그래서 모든 신화와 꿈은 사라졌다고 한다. 실제로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성적 설명으로서의 로고스 앞에 신화는 빛을 잃었다. 옛 그리스신화의 주인공은 올림푸스산을 거닐며 노니던 신들이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고난과 역경에 허덕이기도 한다. 그 모습은 결국 인간세계를 반영한다. 이렇듯 그리스신화는 자연 속에서 인간과 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어우러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은 영웅신화의 재현이다.



섹스십벌 마돈나는 성공신화의 대표격이다.

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 주인공이 사라진 시대, 그 빈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영웅은 누구일까.

먼저 슈퍼맨 신화.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는 슈퍼맨이라는 상징적 형태를 창안했다. 하늘을 나는 슈퍼맨은 물론 영웅신화의 재현이다.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의 영웅》을 보라. 슈퍼맨 신화는 대중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된다. 대중은 슈퍼맨을 따르고 거꾸로 모방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후 배트맨·람보 등의 이미지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현대의 대중문화는 초자연적 힘을 인간화한 것이다.

이런 문화영웅을 보고 사람은 무엇을 꿈꾸고 열망하는가. 성공이 그것이다. 이것에 강조점을 둘 때 '스타덤에 오른다'는 말의 참의미가 드러난다. 타인의 질시를 물리치고 스스로 세상의 정복자인 양 당당하게 군림하는 자, 이게 바로 현대의 대중스타가 아니던가. 그런 뜻에서 섹스 십벌 마돈나는 성공 신화의 대표격이다. 그와 같은 스타는 일상생활을 초월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강하게 심어줬으며, 그리하여 지금도 마돈나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이 텔레비전과 영화 화면을 통해 매일같이 우리의 이목을 유혹하는 것이다.

한편 대중문화는 흔히 도피의 장으로 여겨지는데, 그 도피란 대체로 일상 탈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일상 탈출에서 비롯된 행동 가운데 가장 순수한 형태의 도피를 제공하는 게 바로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대표되는 스포츠의 세계다. 놀이의 철학자 로제 카이유에 따르면, 현대의 스포츠는 선수들 가운데 공평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혼란'을 이상적인 상태로 대치한다. 과거 신화에서 신들의 질투나 복수는 다반사였으나 전쟁은 일종의 스포츠 같은 것이었다. 서로를 다치거나 죽게 할 수는 없다. 신들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 한낮에 꾸는 꿈

옛 신화는 밤하늘의 별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신비의 별을 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 상상의 날개를 퍼듯이 말이다. 오늘의 대중문화는 '낮꿈'이다. 한낮에 꿈을 꾸게 하는 게 대중문화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의 입장이기도 하다. 블로흐는 그의 주저 《희망의 원리》에서 백일몽과 판타지에는 유토피아적 충동이 새겨 있으며, 그 충동에 기반해 어떻게 삶과 문화의 대안적 지평을 설계할 것인지를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라쉬의 《나르시시즘의 문화》는 현대문화의 성격이 나르시시즘으로 흐른다고 딱 우려섞인 지적을 한다. 현재만이 중요할 따름이며 항상 즉각적인 자기 만족을 요구하면서도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상태에서 삶이 영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자아에만 집착하는 소위 '나르시시즘적 인간형'이 넘쳐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진단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처한 대중문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면 현대의 꿈과 신화에 미래는 있는가. 왜 이렇게 묻냐면, 갈수록 첨단문명으로 치닫는 시대에 과연 대중문화의 세계에서 유토피아적 충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시달리고 내면적인 공허함으로 인해 점점 더 나르시시즘적 경향에 빠지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현대문명에서 차지하는 신화적 상상력의 위상 문제다.

단적으로 말하자. 우주를 탐험하는 과학적 시도는 정녕 태고의 신화를 추방할 것인가. 가이아의 이론가 제임스 러브록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는 《가이아의 시대》에서 "내가 처음 마음속에 그리스신화의 대모신 가이아를 생각했을 때, 나는 우주인이 달 위에 서서 우리의 지구를 되돌아보았을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모든 과학적 발전이 대담한 상상력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라면 러브록의 가이아론에는 지구 전체를 거대한 상상력에서 바라보는 시적 대담함이 있다.

그리스신화의 대모신이 현대의 과학적 세계에 의해 탈신화화됐다면, 거꾸로 현대적 가이아는 현대과학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화로 재신화화돼 등장한다. 신화와 꿈은 동일한 자리터에서 나온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미래적 꿈을 꾸며 비전을 실현시키는 초월적 실천 때문이다. 신화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억압됐다가 다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다.●